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정현백 귀하 (우11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경유)
제목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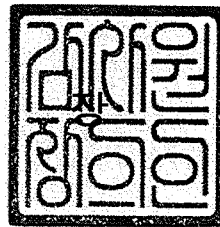
1. 감사원은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3. 12. 9.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공익감사 2013-165호, 한국개발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 관련)에 대하여 '14. 5. 12.부터 5. 16.까지 조사확인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붙임 :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1부. 끝.

감 사 원



감사주사보

이철재

부감사관

박양수

감사청구조사
국 조사2과장

전결 2014. 6.
16.
이희두

협조자

시행 조사2과-2102

(2014. 6. 16.)

접수

우 110-7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감사원)

/ <http://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3505

팩스번호 02-2011-2765

/ fethe3@korea.kr

/ 비공개(5,6)

[붙임]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 관련]

청구이유	조사확인결과
<p>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으로 재직('07. 1. 1~'13. 11. 22) 시 법인카드로 휴가 중 5건 54만 원, 공휴일·주말에 70건 609만 원, 관외지역에서 455건 6,384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음</p>	<p>○ 민주당 전병헌 의원(前 원내대표)이 '13. 12. 3. 前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문형표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14. 4. 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되었음</p> <p>* 참여연대에서는 '13. 11.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부패행위 신고</p> <p>-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됨</p>
<p>2.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KDI 원장으로 재직('09. 3. 24~'13. 3. 21.) 시 '10. 10. 29. 및 11. 29. 저녁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각각 59만 원, 37만 원을 결제하였고, '09년에는 카드 전체 사용액의 44.8%, '10년에는 38.4%의 금액을 특급호텔에서 식사비로 결제하는 등 부당 사용한 의혹이 있음</p>	<p>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p> <p>○ 현오석 前 KDI 원장은 서양음식점으로 신고된 반포본동 소재 에스석에서 2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p> <p>- '10. 10. 29.에는 소속 직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60년사" 출간 관련 격려 및 현안과제 논의 용도로, 같은 해 11. 29.에는 소속 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한국경제 60년사 최종출간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점검 용도로 사용하는 등</p> <p>-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어 사용하였고, 유흥업소 형태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p> <p>* 에스석(대표 김재순)은 '04. 3. 3. 일반음식점(지상1층, 41.55㎡)으로 영업신고를 필하고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서양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으로 클린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나</p> <p>- 사업자가 둘 수 없는 여성접객원을 고용하여 맥주,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곳임</p>

청구이유	조사확인결과
	<p>나.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p> <p>○ 위 현오석은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호텔에서 총 165회에 걸쳐 35,299,516원(총 집행액 94,070,506원의 37.5%)을 집행하였음</p> <p>-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1인 1회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p> <p>- 호텔 사용액 중 '09년 89.8%(6,342,176원), '10년 68.9%(6,066,707원)를 아침·점심 등 주로 낮시간대에 회의 및 외빈과의 오·만찬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지출증빙에는 집행 목적과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불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p> <p>* 위 현오석은 청문회 직전인 '13. 2. 20.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09년부터 '13년까지 호텔 사용분(15건 2,884,125원) 포함 주말 사용 120건 17,368,325원을 전액 반납조치 하였고</p> <p>- KDI에서는 그 후 '13년도부터 분기별로 1회씩 유흥업소로 의심되는 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환수 등 조치를 하고, '14. 2. 1.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강화방안” 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p>
<p>청구이유 “1”은 검찰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므로 각하하고, “2”는 조사·확인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